



부민캠퍼스 전경

동아대 학생 중심 'BEYOND 교육혁신 모델' 안착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명문사학'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Quantum Leap 2024+'를 추진하고 있다.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한 동아대는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기존의 학과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BEYOND 교육혁신'으로 학생 중심의, 경계를 넘는 교육기반을 확립했다.

스스로 진화하는 학생을 키우기 위한 동아대의 'BEYOND 교육혁신 모델'은 현재의 경계와 한계, 범주를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 패러다임 혁신을 의미한다. BEYOND 교육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마이크로모듈 선택형 이중전공제'를 도입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마이크로모듈(micro-module)은 학과 내 또는 학과 간 조합이 가능한 최소 단위의 교과목 묶음으로 설계된 교과 과정이다. 사회진출 분야 중심으로 설계된 마이크로모듈을 학생이 선택해 이수함으로써 전공 및 융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연한 교과 구조다. 이는 일체형·학과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듈형·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 학생 선택

권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아대는 지역 대학 최초로 첨단 통합 미러링(mirroring)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협력형 강의실'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SBL'(문제해결형)과 '코칭'(co-teaching), 'O2O'(온라인 학습자 맞춤형, 플립드러닝(온라인 선행학습 뒤 토론식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캡스톤디자인(작품을 설계·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쌍방향 교육을 하고 있다.

또 'e-러닝 고도화'를 목표로 가상대학(LMS)을 새롭게 정비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도 안정적으로 진행하며 뉴 노멀 시대도 성공적으로 맞고 있다.

동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불확실성에 대비한 미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기업-지역이 함께 교육하는 소셜 유니버시티(Social University)'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계를 넘는 교육체제로 빠르게 전환, 능동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세계 시민 소양을 갖춘 스스로 진화하는 학생'을 키우는 미래 교육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



승학캠퍼스 뉴턴공원



스마트 협력형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코칭 수업을 하고 있다.



* 이 광고는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6학번 김한솔학생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광고입니다.

승학캠퍼스(대학본부)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